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예술 분야 도서

몸과 움직임 읽기: 라반 움직임 분석의 이론과 실제
신상미 · 김재리 지음 | 2010 | 272면 | 20,000원

무용 예술의 이해
김말복 지음 | 2003 | 432면 | 18,000원
· 2004 대한민국예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사라지지 않는 예술, 무용이론을 말하다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편 | 2016 | 424면 | 28,000원

예술: 세계 이해를 향한 도전
김애령 지음 | 2006 | 240면 | 15,000원

예술과 사상(제3개정판)
김혜숙 · 김혜련 지음 | 2007 | 376면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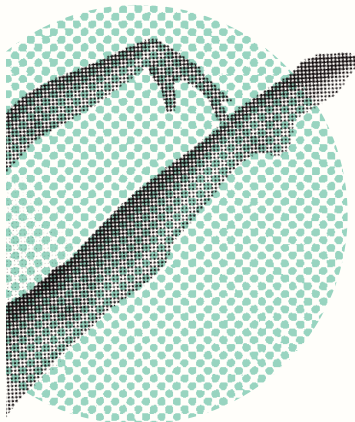
우리 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8>
김말복 지음 | 2005 | 148면 | 12,000원

인간은 왜 춤을 추는가: 인류의 춤 문화 코드 읽기
신상미 지음 | 2013 | 496면 | 28,000원
· 2014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춤과 몸
김말복 지음 | 2010 | 352면 | 20,000원

한국의 탈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10>
조동일 지음 | 2005 | 112면 | 12,000원

현대무용 실기
육란순 지음 | 1981 | 180면 | 8,000원



Ideas in Contemporary Dance
expression & deconstruction

이 책은 20세기 무용이 당대의 시대사상들과 공유하는 핵심적인 예술 가치와 이념들을 ‘표현과 해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는 연구서이다. 여기에서는 모던 댄스와 현대 발레, 포스트모던 댄스와 컨템퍼러리 댄스에 이르는 무용예술이 실존주의, 기호학, 예술심리학, 사회주의 리얼리즘, 아르누보, 해체미학, 기술철학, 후기구조주의, 글로벌 문화 등과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무용사상과 오늘날 컨템퍼러리 댄스의 현장을 면밀히 분석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다양한 무용예술의 개념들을 조망하고, 당대를 대표하는 무용 작품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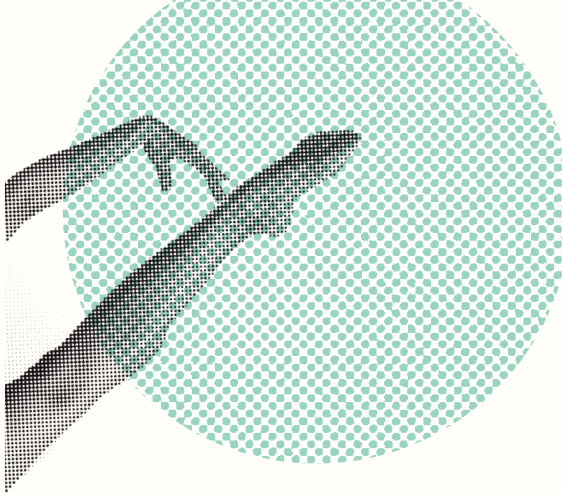
값 28,000원

현대무용사상

표현과 해체

김말복 · 이지원 · 이지선 · 나일화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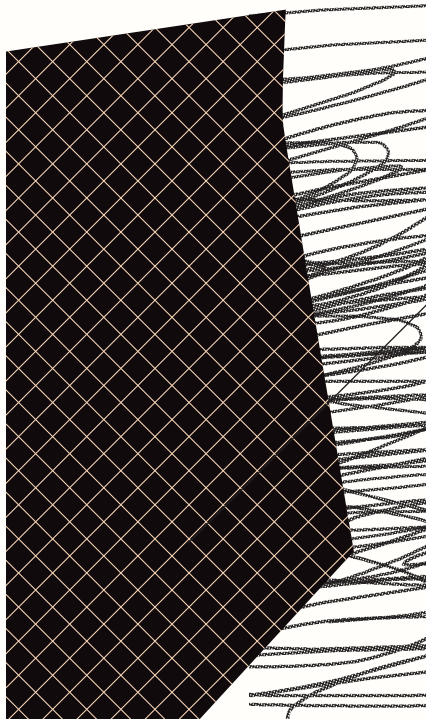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표현과
해체

Ideas in Contemporary Dance
expression & deconstruction

김말복 · 이지원 · 이지선 · 나일화 지음



19세기 말 유럽은 세기말적 불안의 징후로 다양한 예술 스타일과 사상이 나타나고 사라져 갔는데 그중에 다양한 분야와 예술 사조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예술 사상의 선구이자 우상으로 칭송받으면서 또한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예술가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로이 플러다. 로이 플러는 무용예술에 빛을 가지다준, 즉 조명을 가르쳐준 첫 번째 스타이다. 그녀는 전통적인 안무의 틀을 무너뜨림으로써 현대무용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오늘날 그녀는 현대무용과 극장 조명기술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르누보와 프랑스 상징주의 이론, 미래파, 초현실주의, 그리고 극장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그녀를 빼놓고 논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다. 로이 플러를 아르누보와 상징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해 각기 아르누보의 선구이자 아이콘으로 그리고 상징주의 이론을 실현해 준 이상적인 상징체로서 그녀의 춤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예술 움직임 속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그녀가 다양한 예술 사조의 시조로 거론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신체를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긴 실크 천으로 가린 채 춤추는 ‘스키트 댄스’를 통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환영과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김말복

미국 위스콘신-매디슨주립대학교에서 무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페퍼다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무용예술학회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무용예술코드』, 『춤과 몸』, 『무용예술의 이해』, 『우리 춤』, 『무용예술론』 등이 있고, 역서로는 『역사 속의 춤』, 『무용의 철학』, 『무용현상학』, 『움직임과 예술에 있어서 표현』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푸코(M. Foucault)와 포사이드(W. Forsythe)의 ‘헤테로토피아’ 논의」, 「니체의 이성비판과 20세기 현대 춤의 반향」 등이 있다.

이지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무용예술학회와 3.1여성동지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춤과 몸의 정치』, 『춤과 논문작성법』, 『춤, 테마로 읽다』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Dance on Politics in Cultural Space」, 「혁명기 러시아 발레에 나타난 막시즘적 표현과 해석」, 「메레디스 몽크의 ‘16mm 귀걸이’에 나타난 해체미학적 특성 연구」 등이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사업의 지원을 받아 『춤과 필름, 미학으로 읽다』를 집필 중이다.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인터랙티브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대 연구교수,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중앙대, 세종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론을 강의했다. 논문으로 「현대춤에 나타난 디지털 융합 양상과 특성 연구」, 「자크 테리다의 해체론적 관점으로 본 현대춤의 탈중심화 논의」, 「영화관 대안 콘텐츠로서의 무용」 등이 있다.

나일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중앙대, 상명대에 출강했다. 저서로는 『효명세자연구』(공저)가 있고, 논문으로는 「글로벌 시대 한국 컨템퍼러리 댄스의 표현과 의미:《목향》,《왕자 호동》,《불생》을 중심으로」, 「컨템퍼러리 댄스에 나타난 신체확장과 의미: 제롬 벨, 앙젤렝 프렐조카주, 자비에르 르 로이의 작품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